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엘라디오스와 성 테라폰 주교순교자

부활 후 제 6주일 / 소경 주일

성 멜레티오스 순교자

제 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제 5조 부활 찬양송 / 82, A214

•성당 찬양송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사도경 : 사도행전 16:16~34 / 255, 봉독서 73

•복음경 : 요한 9:1~38 / 102, B 24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엘라디오스와 성 테라폰 주교순교자

착한 목자의 비유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요한10:1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목자들은 옛날과 현재, 그리고 거룩한 성직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투쟁하는 온 교회에 전반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월 27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엘라디오스와 성 테라폰 주교순교자들이 바로 착한 목자들입니다. 이 분들은 “양들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박해시대 때 자신들의 양떼를 샅쨌들처럼 방치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사목자들의 죽음은 양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이 흘리는 피가 있는 곳에서는 믿음의 나무가 생동합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II고린토4:12)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리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자 Danilo Calabrese는 Covid-19가 말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줄지 상상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화형식을 사용하여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를 특징짓는 대인 관계의 많은 다른 문제들뿐만 아니라 환경과 동료에 대한 인간의 허영과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해야 했던 고립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매일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포옹, 인간 접촉, 대화, 악수, 친구들과의 저녁시간, 중심가에서의 산책 및 저녁식사, 상점 방문, 야외 공원에서 뛰기” 이러한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서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그는 우리가 모두 동일하며 우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평범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존재하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본문 : 나는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는 이 모든 황당한 상황에는 어떠한 하나의 의미가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편지로 무엇을 말해 줄지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ovid-19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시간에 알려주지 않은 점을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 도착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어느 강도로 여러분에게 정착할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진화하는 대신 퇴보하는 당신을 보고 지쳐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을 보고 지쳤습니다. 우리 지구를 대하는 방법에 지쳤습니다. 서로가 대하는 방식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학대, 당신이 저지르는 폭력, 전쟁, 대인 관계 갈등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신에 지쳤습니다. 나는 사회적 외모에 대한 시기, 당신의 재주, 당신의 위선과 당신의 이기심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아주 적은 시간만 할애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열은 사람이었는지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본질의 중요성에 표면적 의미만 부여하는데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수동적인 면과 가장 좋은 옷, 최신 스마트폰, 가장 멋진 차를 오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검색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속임수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최신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서로의 친교에 최소시간을 할애하는데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성장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소한 일에 불일치하고 서로 싸우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과 당신을 지배하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충돌에 지쳤습니다. 나는 하나의 축구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죽이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 다음 주에 계속

위대한 더하기(+)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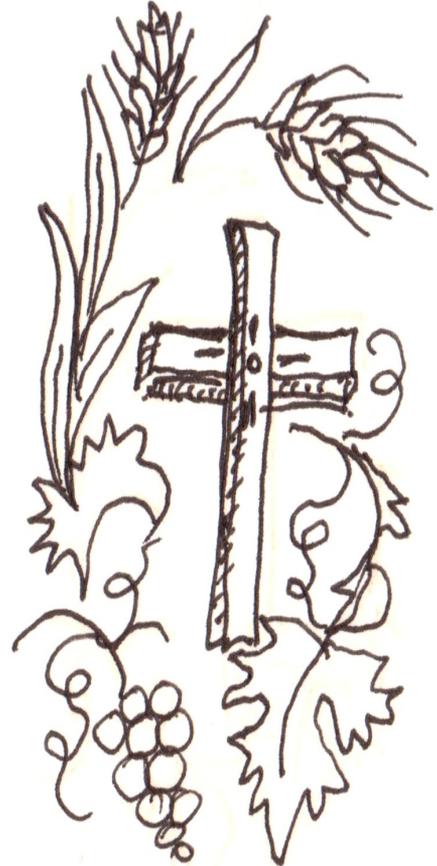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더하기' 표시다. 그것도 이 세계가 일찍이 경험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더하기 표시이다. 더구나 그것은 당신과 나를 위해 마련된 하느님의 고귀한 더하기 표시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엄청난 더하기를 제공하신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1.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홀로 남겨져있지 않다. 하느님의 현존(임재, 함께 하심), 그분의 안내와 인도하심, 지혜 등의 위대한 '더하기'를 가질 수 있다.
2. 죄인은 용서와 동일한 하느님의 자비를 '더하기' 한다.
3. 혼란에 빠진 이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 완전히 새로운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더하기' 한다.
4. 죄의 노예가 되어 불안한 사람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더하기' 한다.
5. 약한 사람은 힘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더하기' 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필립비 4:13)
6. 절망하는 사람은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더하기' 한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끝이 아니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끝이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씀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은 곧: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공지사항.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4월 3일 “하느님의 원하심으로, 5월 26일 밤 부활절 종례일에는 모두 성당에 나와서 함께 부활절 축일을 경축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이 날은 부활절 이후 40일째가 되는 부활절 종례일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부활 찬양송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부활절 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발병한 새로운 사례들로 인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안타깝지만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를 5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부터 9:30까지 오직 청장년들만 참석**하고, 병약자와 노약자들의 참여없이 드리게 된다고 공지합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규정된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즉, 밤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재고, 준비된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로 2미터 간격을 두고 자리합니다.

노약자 분들은 평일에 있는 축일 성찬예배 때 오셔서 규정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성찬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큰 축일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성당에서 예배에 모든 신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지원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5. 16

한국정교회 대교구

주간예식



5월 27일(수) 부활절 종례일

5월 28일(목)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축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